# 우리나라 조경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최근 녹색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주변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국내 조경수 시장규모는 8천억원이 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46억 5천만달러(한화로 약 5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조경수 산업이 녹색성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 설립이래로 조경수의 생산과 보급, 관리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조경수를 포함한 조경 및 식재용 식물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 맞추어 질 좋은 조경수를 재배 공급하는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은 앞으로 조경수협회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경수 산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경수종에 대한 원산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각국은 미래자원인 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의 선진국은 세계각지에서 조경용, 원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식물자원을 탐색하여 도입한 역사가 200년이 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식물자원을 도입할 수는 없다. 이는 식물의 자원 가치가 높아지면서 원산지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여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도 가

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든 원산지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외 여건변화는 국내 조경수 업계에도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조경수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우리 조경수가 기존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두 번째로는 조경수의 품종 및 식물명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조경수의 식재와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품종의 정확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산사나무'를 식재한 현장에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산사나무가 아닌 북미원산의 수종이 심겨졌거나 '마가목'을 식재한 현장에 유럽원산의 수종이 심겨진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특히 식물학, 임학, 원예학에서 지칭하는 수종명이나 품종명의 개념이 일반과는 달라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배와 유통단계에서부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품종명과 관련하여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라도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재배품종명의 표준화 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4,700여종의 품종명을 표준화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조경수의 재배측면에 있어서 품목의 다양화 및 재배법 개발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조경은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경 자체가 건축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또 조경은 폭넓은 개념으로는 새로운 경관을 만드는 일종의 예술적 창작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을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식재소재는 화가의 표현을 도와주는 물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비교는 힘들겠지만 두 종류의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과 10종류의 물감으로 그리는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다양하고 아름다울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경목을 굴취하여 이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배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경목 이식은 식재 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수형이 제 모습을 갖추는데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목원 또는 식물원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겠지만 수목원 또는 식물원과 종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수목원은 목적자체가 새로운 식물을 도입하여 재배하고 전시, 보전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의 기후나 환경에 적합한 많은 종류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식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목원과 조경수 재배 임가(林家)는 서로 상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새로운 식물도입과 지역에서의 적응성 검토 등은 수목원이 우위에 있는 반면 특정 수종을 증식하고 대량으로 재배하는 능력은 조경수 전문재배가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목원, 식물원간에 전략적으로 제휴가 이루어진다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그동안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한국조경수협회와 산림관련 종사자들의 저력으로 보아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경수 산업이 녹색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